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 새 봄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지도교수 정 진 화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 새 봄

김새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새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여성인구의 상대적인 감소에 따라 많은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농가인구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등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은 본인 스스로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파악과 함께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및 각 영역별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2단계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삶의 질이 전반적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과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은 유사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는 환경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 사회적 관계 영역이 경제적 영역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도시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 비해 경제적 영역의 영향력이 더 크다.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은 전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구성되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 영역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혼 전 국적과 본인 취업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과 필리핀인 여성의 경우 중국(조선족)인 여성에 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결혼 전 국적이 일본인 여성은 중국(조선족)인 여성에 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는 모두 전반적 영역의 결정요인이었으나 한국어 수준에 한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경제적 영역은 모국가족의 경제수준과 한국가족의 경제수준의 차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위변화와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영역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배우자를 만난 경로와 배우자의 농림어업종사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 및 친지,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여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림어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는 전

반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인 취업여부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인적자본 변수들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적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 전국적과 배우자의 농림어업종사여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하며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농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제한된 시점과 일부 문항에 한해 조사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을 배제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아닌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했다는 점과 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학 번 : 2011-23488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 4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국내외 정책	7
제 1절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7
제 2절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1
제 3절 해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7
제 3 장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과 기술적 통계	22
제 1절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	22
제 2절 기술적 통계	24
제 4 장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46
제 1절 분석모형	46
제 2 절 변수설정	48
제 5 장 실증분석결과	56
제 1절 삶의 질의 영역별 결정요인	56
제 2절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7

제 6 장 결론	80
제 1절 결과 및 요약	80
제 2절 한계 및 시사점	82
참고문헌	86
부록	90
Abstract	92

< 표 목 차 >

<표 2-1> 농가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7
<표 2-2> 결혼적령기 농가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8
<표 2-3>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추이	9
<표 2-4>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 추이	10
<표 2-5>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11
<표 2-6>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2
<표 2-7>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3
<표 2-8>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14
<표 2-9> 사회통합프로그램 체계	15
<표 2-10> 이주여성농업인 교육 현황	16
<표 2-11> 다문화가정 농촌 정착지원과정 현황	16
<표 2-12> 프랑스의 이민자 교육과정	17
<표 2-13>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19
<표 2-14>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	20
<표 3-1> 표본의 거주 지역 분포	25
<표 3-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농 비교	27
<표 3-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농 비교-계속	28
<표 3-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	29
<표 3-4>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	30
<표 3-5>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특성	31
<표 3-6>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특성	31
<표 3-7>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 특성 : 도농비교	33
<표 3-8>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	35
<표 3-9>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	35
<표 3-10>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인적자본 특성	37
<표 3-11>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인적자본 특성	37
<표 3-12>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과 인적자본 특성	38

<표 3-13>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과 인적자본 특성	39
<표 3-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특성 : 도농비교	40
<표 3-15>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모국인지지	41
<표 3-16>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모국인지지	42
<표 3-17>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인지지	43
<표 3-18>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인지지	44
<표 3-19> 결혼이주여성의 문항별 만족도	45
<표 4-1> WHOQOL-BREF 삶의 질 척도	49
<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척도	50
<표 4-3> 종속변수의 설정	52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	54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계속	55
<표 5-1> 전반적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8
<표 5-2> 전반적 영역 한계효과-도시	59
<표 5-3> 전반적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59
<표 5-4> 경제적 영역1.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월 평균 가구소득)	62
<표 5-5> 경제적 영역1. 한계효과-도시	63
<표 5-6> 경제적 영역1. 한계효과-농어촌	63
<표 5-7> 경제적 영역2.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사회경제적 지위변화)	66
<표 5-8> 경제적 영역2. 한계효과-도시	67
<표 5-9> 경제적 영역2. 한계효과-농어촌	67
<표 5-10> 사회적 관계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가족 관계 만족도)	70
<표 5-11> 사회적 관계 영역 한계효과-도시	71
<표 5-12> 사회적 관계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71
<표 5-13> 환경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차별경험정도)	73
<표 5-14> 환경 영역 한계효과-도시	74

<표 5-15> 환경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74
<표 5-16> 각 영역별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76
<표 5-17>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전반적 삶의 만족도)	78
<표 5-18>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계효과-도시 ..	79
<표 5-19>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계효과-농어촌	79

< 그 립 목 차 >

<그림 2-1>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규모 추이	8
<그림 2-2> 연도별 농어촌 결혼이민자 수 추이	10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인구구조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인종·다문화현상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남성인구에 비해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이는 농가인구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며, 그 자녀들은 잠재적인 영농승계자로서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자원이다(강혜정, 2009; 박대식 외, 2011).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며 배우자 또한 도시의 배우자들에 비해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의 원만한 생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은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반적인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질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한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한해 분석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결정요인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존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 주관적 후생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삶의 질은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척도가 주관적이므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Sen(1993)은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 행복, 정치적 안정, 시민적 자유, 사회적 행복, 기후, 안전, 직업, 사회생활, 정신적 행복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lhey와 Bohnke(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객관적인 영역과 주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객관적인 영역에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소득, 주거형태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주관적인 영역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 측정되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객관적인 영역과 주관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전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를 설문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다양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요인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악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세기 중반까지 인간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극심한 양극화, 자살률 상승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풍족함이 반드시 높은 삶의 질을 수반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삶의 질의 문제가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부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박대식 외, 2007).

삶의 질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Esdterlin(1974)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효용함수는 절대소득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상대적인 위치에서 결정된다는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을 증명하였다. Frey와 Stutzer(2000)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소득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Oswald(1997)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업과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업상태일수록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lanchflower와 Oswald(2004)는

미국의 사회총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와 영국의 유럽지표조사(Eurobarometer Survey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각 나라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위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았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가 감소하였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OECD(2001)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적자원과 사회자본 및 국가의 외부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의 정도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태룡 외(2000)는 설문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사회관계와 개인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희봉과 이희창(2005)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자본과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와 신뢰로 나타났다. 이태호 외(2009)는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 행복도의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농가의 행복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차원규(2012)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와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삶, 경제적 삶, 즐기는 삶, 편리한 삶, 건강한 삶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으며, 도시가구는 일반가구와, 농촌가구는 노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로여부, 가구형태는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가구와 일반가구에서는 경제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성도경과 이지영(2010)은 경상북도 포항시의 결혼이주여성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긍정적 자아 존중감, 남편과 시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혜와 김경원(2011)은 전국 4개 도시의 결혼이주여성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상태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상태가 좋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박대식 외(2011)은 전국 34개 도농복합시의 다문화가구 4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지지와 여성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이 사회적응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구영(2012)은 전라남도 결혼이주여성 258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과 김안나(2012)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보유자원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형백과 이성우(2005)는 인구규모와 인구의 질적 특성, 경관이나 토지이용, 자본축적량 등의 경제적 지표, 생활구조, 집단관계와 같은 사회적 특질 차이의 총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고 있다. 이성우 외(2003)는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4가지 유형(도농 토지이용 경합지역, 농촌형 토지이용지역, 도시형 토지이용지역, 회색지역)의 지역을 구분하였다. 농촌지역을 결정하는 농촌지향성지표로는 인구집적도, 농업인구증감, 농촌형 산업구조, 농촌적 토지이용, 농외소득수준 등이 이용되었다. 이상호(2008)는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전국 8개도 81개 군지역을 농어촌으로 설정하였다.

제 4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국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할 분석모형과 변수를 설명하고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장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국내외 정책

제 1절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 농가인구규모의 변화

우리나라 농가인구규모는 2000년 4,031,065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2,962,113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규모감소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2,342,267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농가인구 중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 농가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단위: 명, %)

구분	2000	2010	2011	2015	2020
여성	2,060,076 (51.1)	1,501,064 (49.0)	1,561,892 (52.7)	1,330,469 (51.1)	1,199,751 (51.2)
남성	1,970,989 (48.9)	1,455,777 (51.0)	1,506,336 (47.3)	1,271,789 (48.9)	1,142,516 (48.8)
전체	4,031,065 (100.0)	3,062,956 (100.0)	2,962,113 (100.0)	2,602,258 (100.0)	2,342,267 (100.0)

자료: 통계청(2012); 김태현 외(2008)

<그림 2-1>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규모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2)

전체 농가인구 중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나 연령별 농가인구구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결혼적령기인 25~34세까지 농가인구규모에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1년 55.5%에서 2015년 64.8%, 2020년 66.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된다고 가정할 때, 농어촌 지역의 성비불균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결혼적령기 농가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단위: 명, %)

구분	2000	2010	2011	2015	2020
여성	140,832 (40.0)	97,515 (44.6)	84,267 (44.5)	38,846 (35.2)	26,119 (33.2)
남성	211,866 (60.0)	121,515 (55.4)	105,274 (55.5)	71,517 (64.8)	52,667 (66.8)
전체	352,698 (100.0)	219,030 (100.0)	189,541 (100.0)	110,363 (100.0)	78,786 (100.0)

자료: 통계청(2012); 김태현 외(2008)

2. 우리나라 국제결혼 추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년 2만 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전체 결혼 327,073건 중 28,325건으로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국제결혼 비중은 도시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경우 2011년부터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5	2010	2011	2012
한국인 남성	30,719 (72.5)	26,274 (76.7)	22,265 (74.8)	20,637 (72.8)
한국인 여성	11,637 (27.5)	7,961 (23.3)	7,497 (25.2)	7,688 (27.2)
도시	33,720 (79.6)	26,320 (76.8)	23,075 (77.5)	22,157 (78.2)
농어촌	8,636 (20.4)	7,915 (23.2)	6,687 (22.5)	6,173 (21.8)
국제결혼	42,356 (100.0)	34,235 (100.0)	29,762 (100.0)	28,325 (100.0)

자료: 통계청(2012)

3. 결혼이민자의 구성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55,408명에서 2012년 196,78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1.2%에서 2012년 89.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약 9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06	2009	2010	2011	2012
여성 결혼이민자	55,408 (61.2)	149,853 (89.7)	161,999 (89.2)	188,580 (89.2)	196,789 (89.2)
남성 결혼이민자	9,835 (38.8)	17,237 (10.3)	19,672 (10.8)	22,878 (10.8)	23,898 (10.8)
전체 결혼이민자	90,489 (100.0)	167,090 (100.0)	181,671 (100.0)	211,458 (100.0)	220,687 (100.0)

주: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자의 합임.

자료: 통계청(2012)

농어촌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2000년 2,091명에서 2006년 8,746명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7,21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2012년 73.9%로 대부분의 농림어업종사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은 2012년에 1,396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이 8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연도별 농어촌 결혼이민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1)

<표 2-5>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명, %)

구분		2005	2010	2011	2012
농림어업 종사자	도시	1,700 (22.4)	1,482 (24.8)	1,396 (26.1)	1,354 (25.1)
	농어촌	5,878 (77.6)	4,489 (75.2)	3,959 (73.9)	4,042 (74.9)
	전체	7,578 (100.0)	5,971 (100.0)	5,355 (100.0)	5,396 (100.0)
국제결혼	도시	512 (17.8)	339 (16.8)	268 (17.2)	220 (15.8)
	농어촌	2,371 (82.2)	1,684 (83.2)	1,291 (82.8)	1,176 (84.2)
	전체	2,883 (100.0)	2,023 (100.0)	1,559 (100.0)	1,396 (100.0)

자료: 통계청(2012)

제 2절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0년대 초 여성가족부가 외국인여성인권 위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박대식 외, 2011).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총 11개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을 여러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1개의 해당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2-6>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점과제	‘12년 예산
영역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반 마련	24,919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	
영역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1,637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강화 및 주요 상대국간 협력 강화	
영역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및 공공부문 진출 확대	38,660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영역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21,378
	다문화가족 특성별 1:1 맞춤지원 서비스 확대	
영역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이해 제고	사회의 여러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 한 인식 제고	5,927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계		92,521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박대식 외(2011)

최근 발표한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0-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5개 영역을 총 6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5개 영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6개 세부과제를 14개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표 2-7>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점과제
영역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
영역 2.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영역 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실시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 실시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구성·운영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영역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 장과 발달 지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산
	Rainbow School 운영
	대학생 멘토링, 우수학생 육성 프로그램 실시
영역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 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 홍보 영상 제작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사항 초·중·등 교과서 반영
영역 6.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 점검 강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양성·배치
2013년 예산	93,000

자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도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총 21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단체와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30개(14.2%)의 센터가 위치해 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211개 중 128개(60.7%)가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지역 83개 중 81개(97.5%)가 읍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군의 면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개, %)

구분	시지역	군지역		계
		읍부	면부	
서울특별시	23	-	-	23
부산광역시	8	1	-	9
대구광역시	6	1	-	7
인천광역시	8	1	-	9
광주광역시	4	-	-	4
대전광역시	5	-	-	5
울산광역시	3	1	-	4
세종특별자치시	-	1	-	1
경기도	27	3	-	30
강원도	6	9	-	15
충청북도	3	8	1	12
충청남도	6	8	-	14
전라북도	6	8	-	14
전라남도	5	15	-	20
경상북도	6	16	1	23
경상남도	10	9	-	19
제주특별자치도	2	-	-	2
합계	128 (60.7)	81 (38.4)	2 (0.9)	211 (100.0)

자료: 다누리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총 5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분된다. 한국사회이해과정의 경우 한국어과정 수료 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총 50시간의 이수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배우자가 한국인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 이민자에 비해 2단계가 간소화 된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최종 단계배정기준은 50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표 2-9> 사회통합프로그램 체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국어과정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이수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사회이해과정		-				50시간
단계 배정 기준	결혼 이민자	29점 이하	30~49점	-	-	50~100점
	일반 이민자	29점 이하	3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자료: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09)

2.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정부는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농업인 교육과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수한 이주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해 기초농업교육을 비롯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전문농장실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농업교육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향후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참여가 가능하다. 1:1 맞춤형 영농교육은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1년간 영농활동에 종사한 결혼이주여성과 5년 이상의 영농활동 경험을 가진 여성농업교육후견인이 짝을 이루어 작목별로 농업전반에 대한 교육이 총 15일간 이루어진다.

<표 2-10> 이주여성농업인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내용	교육 횟수	지원인원
기초농업교육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15회 (3시간)	500
1:1 맞춤형 영농교육	작목별 맞춤형 농업교육	15일	600
전문농장실습	농업전문가기술훈육	총25주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4인기준: 배우자, 자녀, 시부모등)이 함께 참여하여 2박 3일간 서로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이해를 높여 원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1>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현황

(단위 : 명)

교육내용	시행횟수	지원인원
한국 전통문화 및 생활교육, 한국 농업이해, 가족 구성원 간 이해도 증진	연 15회 (2박 3일)	1,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 3절 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민자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프랑스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현재 프랑스에는 전체인구 6천 5백만 명 중 4백만 명의 이민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의 6.2%에 해당하며, 파리 인구의 13%를 차지한다(허진영, 2012).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프랑스 정부와 ‘수용 및 통합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을 통해 이민자는 다양한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 이민자는 ‘프랑스어 능력배양 과정’과 ‘시민성 함양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 최초갱신이 취소되며 10년 장기체류허가 발급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박대식 외, 2011).

<표 2-12> 프랑스의 이민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프랑스어 능력배양 과정	이민자 전체	200~400시간
시민성 함양교육 과정		24시간

자료: 박대식 외(2011)

프랑스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사회보장지원 및 교육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지원은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이며 ‘사회통합 및 기회 균등처’에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한다(박대식 외, 2011; 김승권 외, 2010).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 자녀들의 적절하고 올바른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CASNAV(Centr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 es des enfants du voyage)를 신설하였다. CASNAV는 이민자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방안과 교수법 연구, 제도권의 직접적 파트너로서의 소통의 기능을 하고 있다(장나나, 2010).

2. 독일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독일의 이민자 수는 전체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급여, 사회복지보조금(Sozialhilfe),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고 있다(강정숙, 2001).

독일 정부는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프로그램은 독일 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을 목적으로 독일의 법질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는 오리엔테이션 강좌와 언어강좌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모든 외국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언어강좌는 모든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총 90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박대식 외, 2011).

독일의 이주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급증했으며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 망명한 지식인 및 숙련된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고급인력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완벽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주민의 언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독일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로 행정부서를 마련하여 다양한 언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언어능력이 형성되는 4~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일어와 모국어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독일어와 모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아래의 <표 2-13>은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운영하는 언어프로그램의 내용이다.

<표 2-13>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목적	사업내용
손잡고 이끌기	1~3세	다언어교육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손잡고 이끌기 배낭	4~6세	다언어교육	이주민 가정 아동의 독일어 및 모국어 능력 향상
이주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이주민 가정 청소년	언어교육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함께 말하기	초등학생	언어교육 및 숙제지도	언어능력 향상 및 숙제지도 프로그램
제2언어 독일어	교사	독일어 교수법 지도	독일어 교수법 자료개발

자료: 김은정(2009), 김승권 외(2010) 재인용.

3. 일본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일본의 국제결혼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남성들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의 동화정책의 입장에서 지방의 이주민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다문화공생사회로의 이행에 최대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내 외국인집단, NGO 등의 상호협력 하에 정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의 핵심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중앙정부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대식 외 2011; 김승권 외 2010).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2-14>와 같으며,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지역 만들기의 3가지 기본 정책으로 구성된다.

<표 2-14>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

기본정책	세부시책
커뮤니케이션 지원	(1) 지역에서의 정보의 다언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정보의 제공 - 외국인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전문가 양성 - NPO 등과의 연계에 의한 다언어 정보의 제공 -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의 활용 (2)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기회의 제공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생활지원	(1)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에 의한 거주 지원, 입주차별 해소 - 외국인주민이 집주하는 단지 등에 상담창구 설치 (2)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학습지원 - 다문화공생 관점에 입각한 국제이해교육추진 (3) 노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와의 연계에 의한 취업지원 - 외국인주민의 창업지원 (4) 의료·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인 의료 통역원 파견 시스템의 구축 - 사회보험에의 가입 촉진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전문성 높은 상담체제의 정비와 인재육성 - 유학생 지원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1)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 계발 - 다문화공생의 거점 만들기 (2) 외국인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y person, 네트워크, 자조조직 등 육성

자료: 總務省(2006), 고혜원 외(2010) 재인용.

4. 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사점

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언어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이 주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언어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모든 이민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강제적인 제약이 없어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한 소수의 이민자들에 한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추진의 핵심주체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총 11개 부처가 핵심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처럼 지방정부가 핵심주체가 되어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제 3 장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과 기술적 통계

제 1절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의 개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민성길 외, 2002). 삶의 질은 그 정의가 모호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외부환경 요소는 자연환경과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해당되며, 내부환경의 요소는 육체적 건강, 개인의 역량, 사회적 활동, 물질적 풍요가 해당된다(Lindstrom 외, 1993; Veenhoven, 2000; Pukeline, 외 2011).

외부환경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를 주기 어려우며, 개개인의 삶의 질 측정이 아닌 국가별 삶의 질 비교가 가능하다. 외부환경 요소를 통한 삶의 질 측정의 대표적인 예는 OECD(세계보건기구) 사회지표의 일반지표(GE)와 형평성 지표(EQ)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이 비해 저조하다.’ 또는 ‘한 국가가 특정 영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OECD, 2001). 반면, 내부환경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를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개개인이 서로 다른 능력과 특성, 직업을 가지게 되어 각 요인별 수준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측정이 가능하다. 삶의 질의 내부환경 요소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외부환경 요소와 달리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로 측정되며 대표

적인 예는 OECD 사회지표의 사회통합지표(CO)와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가 있다. 내부환경을 고려한 삶의 질의 측정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환경을 배제하여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만을 포함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2. 인적자본과 삶의 질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을 일컫는다(유현숙, 2005). 인적자본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교육, 취업 등이 있다(Schulz, 1961).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사항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Ross 외, 1997).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은 크게 모국에서 형성된 인적자본과 한국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모국 인적자본은 모국에서 받은 교육과 취업경험 등이 있으며 한국 인적자본은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취업경험, 한국어 수준 등이 있다. 모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경험은 한국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며, 한국에서의 인적자본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자본과 달리 개인의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속한 가족 및 사

회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되는 복합적인 형태로 신뢰와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축적된다.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모국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적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모국 사회적 자본은 모국 가족과의 관계와 모국인 네트워크가 포함되며 한국 사회적 자본은 한국인 네트워크와 한국에서의 지역사회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절 기술적 통계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전체 73,660명 데이터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11,139명의 관측치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자료의 모집단은 안전행정부에서 작성한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귀화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 총 154,333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대상은 73,669명이다. 본 자료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자료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한 장점이 있으나 일부 항목만을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한계를 지닌다.

2. 표본의 거주 지역 분포

표본의 거주 지역은 크게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되며 농어촌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의 읍면 지역으로 하였다. 표본 총 11,139명 중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6,866명으로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4,273명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2개 지역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전체 11,139명중 2,351(2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1,352명, 12.2%), 경상남도(1,152명, 10.3%), 인천광역시(1,070명, 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표본의 거주 지역 분포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중
도시	6,866	(61.6)
농어촌	4,273	(38.4)
합계	11,139	(100.0)
서울특별시	1,352	(12.2)
부산광역시	595	(5.3)
대구광역시	393	(3.5)
인천광역시	1,070	(9.6)
광주광역시	278	(2.5)
대전광역시	168	(1.5)
울산광역시	295	(2.7)
경기도	2,351	(21.1)
강원도	455	(4.1)
충청북도	349	(3.1)
충청남도	670	(6.0)
전라북도	626	(5.6)
전라남도	407	(3.7)
경상북도	865	(7.8)
경상남도	1,152	(10.3)
제주특별자치도	113	(1.0)
합계	11,139	(100.0)

3.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본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2>와 같다. 도시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전체 6,866명 중 1,297명으로 18.9%에 해당하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1,230명으로 28.8%의 비중을 차지하여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이 중국(조선족)인 경우가 전체 6,886명 중 2,973명으로 4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1,122명으로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결혼 전 국적이 중국(조선족)인 경우보다 베트남인 경우가 3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결혼한 여성은 도시의 경우 각각 36.2%와 15.0%로 농어촌의 31.3%와 8.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여성이 전체 6,866명 중 1,876명으로 24.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농어촌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전체 4,723명 중 1,646명으로 38.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도시의 경우 전체 6,866명 중 1,216명인 17.7%와 농어촌의 전체 4,273명 중 1,601명인 37.5%의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모두 배우자가 기능 및 기계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각각 26.7%와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체 6,866명 중 117명으로 1.7%에 불과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977명인 2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중은 농어촌의 경우가 52.7%로 도시의 3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농 비교

단위: 명, %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본인	연령	20세~29세	1,297	(18.9)	1,230	(28.8)
		30세~39세	2,649	(38.6)	1,603	(37.5)
		40세~49세	1,942	(28.3)	1,025	(24.0)
		50세~59세	785	(11.4)	350	(8.2)
		60세 이상	193	(2.8)	65	(1.5)
	건강상태	매우 좋음	1,229	(17.7)	906	(21.2)
		좋음	2,493	(36.3)	1,471	(34.4)
		보통	2,395	(34.9)	1,523	(35.6)
		나쁨	668	(9.7)	341	(8.0)
		매우 나쁨	90	(1.3)	32	(0.8)
	결혼 전 국적	중국(조선족)	2,973	(43.3)	1,122	(26.3)
		중국(조선족 외)	1,171	(17.1)	439	(10.3)
		베트남	1,595	(23.2)	1,695	(39.7)
		필리핀	322	(4.7)	351	(8.2)
		일본	374	(5.5)	370	(8.7)
		몽골	85	(1.2)	49	(1.1)
		태국	88	(1.3)	116	(2.7)
		우즈베키스탄	73	(1.0)	43	(1.0)
		기타	185	(2.7)	88	(2.1)
	국적 취득	취득	2,488	(36.2)	1,336	(31.3)
		미취득	4,378	(63.8)	2,937	(68.7)
	입국목적	결혼	5,835	(85.0)	3,894	(91.1)
		결혼 이외	1,031	(15.0)	379	(8.9)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1,684	(24.5)	1,646	(38.5)
		가족·친척	1,876	(27.3)	967	(22.6)
		친구·동료	1,565	(22.8)	653	(15.3)
		종교기관	388	(5.7)	568	(13.3)
		스스로	1,167	(17.0)	336	(7.9)
		기타	186	(2.7)	103	(2.4)
	배우자 연령	20세~29세	15	(0.2)	15	(0.3)
		30세~39세	629	(9.2)	333	(7.8)
		40세~49세	3,565	(51.9)	2,408	(56.4)
		50세~59세	2,038	(29.7)	1,296	(30.3)
		60세 이상	619	(9.0)	221	(5.2)
	합계			6,866	(100.0)	4,273

<표 3-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농 비교-계속

단위: 명, %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117	(1.7)	977	(22.9)
		서비스 및 판매업	1,014	(14.8)	398	(9.3)
		기능 및 기계조작업	1,833	(26.7)	995	(23.3)
		단순노무자	1,188	(17.3)	662	(15.5)
		사무종사자	422	(6.1)	170	(4.0)
		전문가 및 임직원	94	(1.4)	39	(0.9)
		기타	982	(14.3)	408	(9.5)
		미취업	1,216	(17.7)	1,601	(37.5)
	미취학 자녀	있음	1,813	(38.6)	1,355	(52.7)
없음		4,287	(62.4)	1,218	(47.3)	
합계			6,866	(100.0)	4,273	(100.0)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대 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3>, <표 3-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대부분의 변수가 도시와 농어촌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국 목적과 배우자의 직업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20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일 경우가 75.8%와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약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취득 여부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20대 그룹에서 각각 6.6%와 6.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그룹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50대 그룹에서 감소하여 60대 이상의 그룹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온 목적은 도시의 경우 20대 집단에서 결혼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타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50대 집단까지 입국 목적이 결혼인 비중이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배우자 직업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농어촌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에서 배우자의 직업이 농림어업인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대 집단 이후부터 농림어업이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모두 20대 집단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중이 각각 40.1%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 40대 그룹에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

단위: %

		연령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건강상태	좋음	59.8	61.0	49.8	38.1	28.6	523.1***
	보통	34.4	32.1	36.7	39.5	39.4	
	나쁨	5.9	6.9	13.5	22.4	32.1	
결혼 전 국적	중국	15.5	60.1	75.8	88.5	94.8	301.5***
	베트남	75.8	20.7	2.8	0.9	0.5	
	기타	8.7	19.2	21.4	10.6	4.7	
국적 취득	취득	6.6	37.6	51.3	39.4	51.8	712.1***
	미취득	93.4	62.4	48.7	60.6	48.2	
입국 목적	결혼	98.1	85.4	81.0	77.6	61.1	318.3***
	기타	1.9	14.5	19.0	22.3	38.9	
배우자직업	농림어업	1.6	1.7	1.6	2.2	2.1	1.37
	기타직업	98.4	98.3	98.4	97.8	97.9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중 개업체	48.3	35.7	11.5	3.7	0.7	140.2***
	기타	9.3	39.5	33.8	13.9	3.5	
미취학 자녀	있음	40.1	36.1	35.5	17.2	17.1	151.8***
	없음	59.9	63.9	64.5	82.8	82.9	
N		1,297	2,649	1,942	785	193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4>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

단위: %

		연령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건강상태	좋음	59.9	61.3	48.7	38.9	35.4	511.1***
	보통	34.6	32.8	39.5	43.1	24.6	
	나쁨	5.5	6.0	11.8	18.0	40.0	
결혼 전 국적	중국	6.5	43.4	52.8	53.1	90.8	2402.3***
	베트남	88.0	34.9	4.7	1.1	0.0	
	기타	5.5	21.7	42.5	45.8	9.2	
국적 취득	취득	6.7	36.1	50.9	35.7	43.1	555.7***
	미취득	93.3	63.9	49.1	64.3	56.9	
입국 목적	결혼	98.3	90.8	87.8	84.3	53.8	224.4***
	기타	1.7	9.2	12.2	15.7	46.2	
배우자직업	농림어업	23.2	20.1	26.5	31.7	33.8	19.6***
	기타직업	76.8	79.9	73.5	78.3	66.2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 중 개업체	54.6	34.6	8.5	1.8	0.6	1041.2***
	기타	12.6	39.4	33.7	12.2	2.1	
미취학 자녀	있음	45.6	37.1	42.0	34.9	6.2	58.5***
	없음	54.4	62.9	58.0	65.1	93.8	
N		1,230	1,603	1,025	350	65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5>, <표 3-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배우자의 직업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도시와 농어촌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모든 국적에서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3% 내외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모든 국적에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특성
단위: %

		결혼 전 국적			χ^2
		중국	베트남	기타	
국적취득 여부	취득	49.2	13.7	20.4	899.7***
	미취득	50.8	86.3	79.6	
입국목적	결혼	81.1	97.7	81.4	328.9***
	기타	18.9	2.3	18.6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11.9	65.8	21.4	195.8***
	기타	88.1	34.2	78.6	
배우자직업	농림어업	1.5	2.2	3.1	8.5***
	기타직업	98.5	97.8	96.9	
미취학 자녀	있음	29.2	41.4	41.1	123.4***
	없음	70.8	58.6	58.9	
N		4,144	1,595	1,127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6>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특성
단위: %

		결혼 전 국적			χ^2
		중국	베트남	기타	
국적취득 여부	취득	56.5	10.9	26.5	1016.8***
	미취득	43.5	89.1	73.5	
입국목적	결혼	85.2	98.7	91.1	269.3***
	기타	14.8	1.3	8.9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14.8	74.3	20.2	1570.1***
	기타	85.2	25.7	79.8	
배우자직업	농림어업	20.9	25.0	23.0	14.2*
	기타직업	79.1	75.0	77.0	
미취학 자녀	있음	33.6	43.7	44.0	65.5***
	없음	66.4	56.3	56.0	
N		1,561	1,695	1,017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4.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은 크게 모국 인적자본과 한국 인적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본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인적자본 특성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모국 교육수준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모두 고등학교졸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졸업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비중이 11.2%로 도시의 7.7%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교육, 가족교육, 직업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90% 가량이 직업훈련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도시의 경우 8.3%, 농어촌의 경우 10.0%의 결혼이주여성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교육의 경험이 있는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58.8%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62.4%가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70% 이상이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매우 서툰’ 1점, ‘서툰’ 2점, ‘보통’ 3점, ‘잘함’ 4점, ‘매우 잘함’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이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쓰기 실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은 도시의 70.7%가 취업한 경험이 있었으며 농어촌의 경우 69.4%가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취업경험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23.1%가 한국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7.5%가 한국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주여성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7>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 특성 : 도농비교

단위: 명, %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모국 교육수준	무학	52	(0.8)	36	(0.8)
	초등학교졸업	475	(6.9)	446	(10.4)
	중학교졸업	1,968	(28.7)	1,250	(29.3)
	고등학교졸업	3,297	(48.0)	1,933	(45.2)
	대학졸업	1,026	(14.9)	578	(13.5)
	대학원졸업	48	(0.7)	30	(0.7)
모국 취업경험	있음	4,855	(70.7)	2,966	(69.4)
	없음	2,011	(29.3)	1,307	(30.6)
한국어 말하기	잘함/보통	5,451	(79.4)	3,203	(74.9)
	서툰	1,415	(20.6)	1,070	(25.1)
한국어 읽기	잘함/보통	5,432	(79.1)	3,230	(75.6)
	서툰	1,434	(20.9)	1,043	(24.4)
한국어 쓰기	잘함/보통	4,941	(72.0)	2,845	(66.6)
	서툰	1,925	(28.0)	1,428	(33.4)
한국 취업경험	있음	1,583	(23.1)	1,177	(27.5)
	없음	5,283	(76.9)	3,096	(72.5)
본인 직업	농림어업	255	(3.7)	190	(4.4)
	기타직업	6,611	(96.3)	4,083	(95.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4,037	(58.8)	2,665	(62.4)
	5년 이상	2,829	(41.2)	1,607	(37.6)
한국어교육 여부	있음	6,808	(99.2)	4,254	(99.5)
	없음	58	(0.8)	19	(0.5)
사회적응 교육여부	있음	6,788	(98.8)	4,242	(99.2)
	없음	78	(1.1)	31	(0.8)
가족교육 여부	있음	6,763	(98.4)	4,226	(98.9)
	없음	103	(1.6)	47	(1.1)
직업훈련 여부	있음	569	(8.3)	427	(10.0)
	없음	6,297	(91.7)	3,846	(90.0)
합계		6,866	(100.0)	4,273	(100.0)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은 다음의 <표 3-8>, <표 3-9>와 같다. 도시와 농어촌 모두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 미만인 비중이 대학졸업이상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인 비중은 도시의 경우 30대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으며, 농어촌의 경우 40대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국과 한국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의 경우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은 도시와 농어촌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의 취업은 도시가 전 연령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집단의 경우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44.7%가 취업경험이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은 2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 상태인 결혼이주여성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60대 이상의 그룹에서 각각 17.1%,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도시와 농어촌 모두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서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어 수준이 서툴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20대 집단에서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60대 집단에 이르러 다시 증가하였다.

<표 3-8>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

단위: %

		연령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국 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92.9	79.3	81.0	92.6	96.4	201.1***
	대학졸업이상	7.1	20.7	19.0	7.4	3.6	
한국어 수준	잘 함	65.9	78.5	84.5	88.5	93.2	671.7***
	서툼	34.1	21.5	15.5	11.5	6.8	
모국 취업경험	있음	62.1	71.5	78.8	79.0	69.4	304.5***
	없음	47.9	28.5	21.2	21.0	30.6	
한국 취업경험	있음	13.2	15.6	29.5	44.7	39.4	910.2***
	없음	86.8	84.4	70.5	55.3	60.6	
본인 직업	농림어업	4.4	1.8	2.5	8.7	17.1	186.6***
	기타직업	95.6	98.2	97.5	91.3	82.9	
N		1,297	2,649	1,942	785	193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9>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

단위: %

		연령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국 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95.7	83.0	78.5	82.9	96.9	162.5***
	대학졸업이상	4.3	17.0	21.5	17.1	3.1	
한국어 수준	잘 함	80.5	66.0	72.2	61.4	81.5	402.5***
	서툼	19.5	34.0	27.8	28.6	18.5	
모국 취업경험	있음	54.6	71.2	78.8	84.9	73.8	211.6***
	없음	45.4	28.8	21.2	15.1	26.2	
한국 취업경험	있음	10.2	14.3	28.0	28.0	24.6	379.9***
	없음	89.8	85.7	72.0	72.0	75.4	
본인 직업	농림어업	5.9	3.8	2.7	4.6	20.0	51.3***
	기타직업	94.1	96.2	97.3	95.4	80.0	
N		1,230	1,603	1,025	350	65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에 따른 인적자본 특성은 다음의 <표 3-10>, <표 3-11>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인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취업경험과 한국취업경험을 비교할 때,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모든 국적에서 모국취업경험에 비해 한국취업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은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과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에서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있어 공통된 현상은 결혼 전 국적이 중국(조선족 포함)인 경우와 기타 국적인 경우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은 중국 국적의 경우 25% 내외, 기타 국적의 경우 15%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 전 국적이 중국(조선족)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른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한국어 수준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모두 결혼 전 국적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들에 비하여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 전 국적이 중국인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이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의복과 음식 문화에서도 우리나라의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하여 우수한 한국어 수준을 가지며, 한국사회에 수월하게 적응할 확률이 높다.

<표 3-10>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인적자본 특성

단위: %

		결혼 전 국적			χ^2
		중국	베트남	기타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89.6	95.8	47.5	1418.4***
	대학졸업이상	10.1	4.2	52.5	
한국어 수준	잘함	80.2	55.3	54.0	1441.4***
	서툰	19.8	44.7	46.0	
모국취업경험	있음	74.9	56.1	76.0	290.8***
	없음	25.1	43.9	24.0	
한국취업경험	있음	28.5	15.1	14.3	320.9***
	없음	75.1	84.9	85.7	
본인 직업	농림어업	3.9	5.3	0.8	42.4***
	기타직업	96.1	94.7	99.2	
N		4,144	1,595	1,127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11>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별 인적자본 특성

단위: %

		결혼 전 국적			χ^2
		중국	베트남	기타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91.7	96.6	53.6	834.8***
	대학졸업이상	8.3	3.4	46.4	
한국어 수준	잘함	88.2	62.3	75.7	1277.1***
	서툰	11.8	37.7	24.3	
모국취업경험	있음	74.5	56.9	69.4	266.8***
	없음	25.5	43.1	30.6	
한국취업경험	있음	24.3	11.2	18.3	213.7***
	없음	75.7	88.8	81.7	
본인 직업	농림어업	3.7	7.2	0.6	62.2***
	기타직업	96.3	92.8	99.7	
N		1,561	1,695	1,017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모국교육수준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 특성은 <표 3-12>, <표 3-13>과 같다.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과 농어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은 모국취업경험과 한국취업경험의 유무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모국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이 대학졸업미만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인 경우보다 대학졸업 미만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도시의 경우 대학졸업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였으나, 농어촌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연령별 인적자본 특성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도시와 농어촌 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인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하여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과 인적자본 특성
단위: %

		모국교육수준		χ^2
		대학졸업미만	대학졸업이상	
한국어 수준	잘 함	71.0	68.5	26.6***
	서툰	29.0	31.5	
모국취업경험	있음	69.8	75.6	14.7***
	없음	30.2	24.4	
한국취업경험	있음	36.7	26.7	39.7***
	없음	63.3	73.3	
본인 직업	농림어업	4.3	0.7	31.3***
	기타직업	95.7	99.3	
N		5,792	1,074	

1)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13>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과 인적자본 특성

단위: %

		모국교육수준		χ^2
		대학졸업미만	대학졸업이상	
한국어 수준	잘 함	64.4	65.3	40.2***
	서툰	35.6	33.7	
모국취업경험	있음	68.1	77.3	20.7***
	없음	31.9	22.7	
한국취업경험	있음	33.2	26.6	11.4***
	없음	66.8	73.4	
본인 직업	농림어업	0.8	5.0	21.9***
	기타직업	99.2	95.0	
N		3,665	608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5.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크게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다. 인적 네트워크에는 지난 1년간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석유무와 지역주민 모임의 참석 유무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하는 사람의 유무, 여가나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의 유무,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함께 참석하는 유무를 나타내는 모국인지지와 한국인지지로 구성된다.

표본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사회적 자본 특성은 아래의 <표 3-14>와 같다. 모국인지지의 경우 도시는 전체 6,866명 중 3,915명(57.5%),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2,653명(62.1%)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지지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집단 모두 약 8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인 친구모임은 도시의 경우 전체 6,766명 중 4,161명(60.6%)이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2,891명(67.7%)이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모임은 도시의 경우 전체 6,766명 중 1,420명(20.7%)이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경우 전체 4,273명 중 1,644명(38.5%)이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특성 : 도농비교

단위: 명, %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모국인지지	있음	3,915 (57.5)	2,653 (62.1)
	없음	2,915 (42.5)	1,619 (37.9)
한국인지지	있음	5,568 (81.1)	3,381 (79.1)
	없음	1,298 (18.9)	892 (20.9)
모국인 친구모임	있음	4,161 (60.6)	2,891 (67.7)
	없음	2,705 (39.4)	1,382 (32.3)
지역주민 모임	있음	1,420 (20.7)	1,644 (38.5)
	없음	5,446 (79.3)	2,629 (61.5)
합계		6,866 (100.0)	4,273 (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특성에 따른 모국인지지는 아래의 <표 3-15>, <표 3-16>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인지지 형성 요소들 중 연령, 모국교육수준, 배우자 직업, 한국취업여부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50대 집단까지 감소하다가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다시 증가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큰 폭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배우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일 경우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의 차이가 12.2%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은 39.8%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미취업상태의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취업상태일 경우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일 경우의 비중이 미취업상태일 경우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모국인지지

단위: %

		모국인지지		χ^2
		있음	없음	
연령	20대	68.6	31.4	230.2***
	30대	61.8	38.2	
	40대	53.3	46.7	
	50대	41.0	59.0	
	60대 이상	65.8	34.2	
결혼 전 국적	중국	49.1	50.9	381.4***
	베트남	70.5	29.5	
	기타	70.1	29.9	
국적취득여부	취득	48.2	51.8	138.5***
	미취득	62.8	37.2	
입국목적	결혼	58.2	41.8	6.1**
	기타	54.0	46.0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65.0	35.0	51.0***
	기타	55.1	44.9	
미취학 자녀	있음	57.5	42.5	4.5**
	없음	56.6	43.4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61.5	38.5	0.7
	기타직업	57.5	42.5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65.4	34.6	31.8***
	대학졸업이상	56.1	43.9	
본인 취업여부	취업	50.5	49.5	55.8***
	미취업	59.7	40.3	
본인 직업	농림어업	53.7	46.3	1.5
	기타직업	57.7	42.3	
N		3,951	2,915	

1)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16>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모국인지지

단위: %

		모국인지지		χ^2
		있음	없음	
연령	20대	70.1	29.9	87.7***
	30대	63.3	36.7	
	40대	54.9	45.1	
	50대	55.4	44.6	
	60대 이상	32.3	67.7	
결혼 전 국적	중국	46.6	53.4	303.1***
	베트남	70.1	29.9	
	기타	72.5	27.5	
국적취득여부	취득	48.3	51.7	158.0***
	미취득	68.4	31.6	
입국목적	결혼	62.9	37.1	14.8***
	기타	53.8	46.2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67.3	32.7	27.1***
	기타	58.9	41.1	
미취학 자녀	있음	57.0	43.0	13.9***
	없음	63.6	36.4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59.9	40.1	6.0**
	기타직업	63.6	36.4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60.8	39.2	18.2***
	대학졸업이상	69.9	30.1	
본인 취업여부	취업	63.2	36.8	13.4***
	미취업	57.1	42.9	
본인 직업	농림어업	55.3	44.7	3.9*
	기타직업	62.4	37.6	
N		2,117	1,263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특성에 따른 한국인지지는 아래의 <표 3-17>, <표 3-18>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지지 형성 요소들 중 연령, 모국교육수준, 본인 취업여부, 농림어업종사여부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지지가 있는 경우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지지가 있

는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학졸업이상인 경우와 취업상태일 경우, 기타직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학졸업미만, 미취업상태,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에 한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7>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인지지

단위: %

		한국인지지		χ^2
		있음	없음	
연령	20대	79.1	20.9	4.4
	30대	81.3	18.7	
	40대	81.6	18.4	
	50대	82.2	17.8	
	60대 이상	81.9	18.1	
결혼 전 국적	중국	82.8	17.2	58.8***
	베트남	77.6	22.4	
	기타	79.8	20.2	
국적취득여부	취득	83.3	16.7	12.1***
	미취득	79.9	20.1	
입국목적	결혼	80.8	19.2	1.6
	기타	82.5	17.5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77.1	22.9	23.4***
	기타	82.4	17.6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83.8	16.2	0.5
	기타직업	81.0	19.0	
미취학 자녀	있음	81.7	18.3	0.8
	없음	80.8	19.2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80.7	19.3	3.1*
	대학졸업이상	83.1	16.9	
한국취업	취업	81.6	18.4	1.7
	미취업	80.9	19.1	
본인 직업	농림어업	79.2	20.8	0.6
	기타직업	81.2	18.8	
N		5,568	1,298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3-18>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인지지

단위: %

		한국인지지		χ^2
		있음	없음	
연령	20대	77.1	22.9	10.8***
	30대	78.7	21.3	
	40대	80.4	19.6	
	50대	82.6	17.4	
	60대 이상	89.2	10.8	
결혼 전 국적	중국	84.2	15.8	62.0***
	베트남	76.3	23.7	
	기타	76.0	24.0	
국적취득여부	취득	82.6	17.4	13.8***
	미취득	77.6	22.4	
입국목적	결혼	78.4	21.6	30.3***
	기타	86.8	13.2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75.0	25.0	13.9***
	기타	81.7	18.3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81.1	18.9	2.8*
	기타직업	78.5	21.5	
미취학 자녀	있음	79.7	20.3	0.0
	없음	78.9	21.1	
모국교육수준	대학졸업미만	79.6	20.4	3.7*
	대학졸업이상	76.2	23.8	
한국취업	취업	77.1	22.9	0.7
	미취업	79.6	20.4	
본인 직업	농림어업	84.7	15.3	3.7*
	기타직업	78.9	21.1	
N		3,381	892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6.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표 3-19>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여러 만족도를 도시와 농어촌을 모두 포함한 전체,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문항별 평균값을 보여주

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은 총 56개 항목 중 5항목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형태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물어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전체의 각 만족도의 평균값은 자녀와의 관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3.76점으로 ‘만족’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의 각 만족도의 평균은 배우자와의 관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도시의 경우 2.77점에 불과한데 반해, 농어촌의 경우 3.24점으로 0.4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만족도 수치만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우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삶의 질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소인 만족도의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가 반드시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어떠한 요인의 높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9> 결혼이주여성의 문항별 만족도

	전체	도시	농어촌
전반적 삶의 만족도	3.76	3.76	3.78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4.04	4.06	4.02
자녀와의 관계	2.95	2.77	3.2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3.13	3.08	3.23
배우자 형제와의 관계	3.63	3.63	3.64
N	11,139	6,866	4,273

제 4 장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제 1절 분석모형

본 연구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통해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반적 영역에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3가지 영역 중 어떠한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법과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2단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순위 프로빗 모형

삶의 질의 각 영역별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닌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이며 순서가 의미를 가진다. 이럴 경우 계량분석모형에서는 순위 로짓(ordered logit) 또는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각 영역을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순위 프로빗 모형은 종속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_i^* 가 존재하고, 식 (1)과 같은 독립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1) \quad y_i^* = \alpha + \beta x_i + e_i$$

이와 같이 설정된 y_i^* 를 다음의 식 (2)와 같은 구간별로 나누어 종속변수 y_i 로 변환한 뒤 독립변수들의 계수인 β 와 한계값 δ_j 를 추정한다.

$$\begin{aligned}
(2) \quad & y_i = 1, y_i^* \leq \delta_1 \\
& y_i = 2, \delta_1 \leq y_i^* \leq \delta_2 \\
& y_i = 3, \delta_2 \leq y_i^* \leq \delta_3 \\
& \vdots \\
& y_i = n, \delta_{n-1} \leq y_i^*
\end{aligned}$$

위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i 가 j 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의 식 (3)과 같다. 여기에서 $F(\cdot)$ 는 오차항 e_i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begin{aligned}
(3) \quad \text{Prob}(y_i = j) &= \text{Prob}(\delta_{j-1} < y_i^* \leq \delta_j) \\
&= \text{Prob}(\delta_{j-1} < \alpha + x_i\beta + e_i \leq \delta_j) \\
&= \text{Prob}(\delta_{j-1} - (\alpha + x_i\beta) < e_i \leq \delta_j - (\alpha + x_i\beta)) \\
&= F(\delta_j - (\alpha + x_i\beta)) - F(\delta_{j-1} - (\alpha + x_i\beta))
\end{aligned}$$

식 (3)에서 추정한 $\hat{\beta}$ 은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실제자료에 나타나는 y_i 에 대한 한계효과가 아닌 잠재변수 y_i^* 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x_i 가 선택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한계효과는 다음의 식 (4)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f(\cdot)$ 는 $F(\cdot)$ 의 1차 미분 함수인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다.

$$\begin{aligned}
(4) \quad \frac{\partial \text{Prob}(y_i = j)}{\partial x_i} &= \frac{\partial F(\delta_j - x_i\beta)}{\partial x_i} - \frac{\partial F(\delta_{j-1} - x_i\beta)}{\partial x_i} \\
&= \beta[f(\delta_{j-1} - x_i\beta) - f(\delta_j - x_i\beta)]
\end{aligned}$$

2. 2단계 분석모형

삶의 질의 전반적 영역(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3가지 영역 중 어떠한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OLS 추정법과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2단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식 (5)와 같이 종속변수인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을 동일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OLS 추정법을 통해 추정한 후, 각 종속변수의 적합값(경제적영역, 사회적관계영역, 환경영역)을 구한다. 2단계에서는 식 (6)과 같이 1단계의 각 종속변수의 적합값을 바탕으로 전반적 영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순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5) \text{경제적 영역}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cdots + \beta_k x_{ki} + e_i$$

$$\text{사회적 관계 영역}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cdots + \beta_k x_{ki} + e_i$$

$$\text{환경 영역}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cdots + \beta_k x_{ki} + e_i$$

$$(6) \text{전반적 삶의 만족도}_i = \gamma_0 + \gamma_1 \text{경제적 영역}_i + \gamma_2 \text{사회적 관계 영역}_i + \gamma_3 \text{환경 영역}_i + u_i$$

제 2 절 변수설정

1. 종속변수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 등 실제로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 많은 연구에서 객관적인 지표만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 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지표도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총 6개 영역 29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진 WHO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ment Instrument)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WHOQOL은 문항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WHOQOL-BREF를 개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WHOQOL-BREF 삶의 질 척도

삶의 질 영역	하부척도
전반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질
	전반적인 건강상태
영역 1. 신체적 건강	통증과 불편감
	에너지와 피로
	수면과 휴식
	활동성
	여가 활동
	약물 또는 치료 의존성
	작업 수행성
	긍정적 감정
영역 2. 심리적 건강	지각, 기억, 집중력
	자존감
	외모
	부정적 감정
	종교, 영적 믿음
	개인적 인간관계
영역 3.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성적 활동
	신체적 안정과 치안
영역 4. 환경 영역	가정환경
	경제적 자원
	건강과 사회적 지원
	정보 및 기술 습득의 기회
	물리적 환경
	교통

자료: 민성길 외(2002)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와 세계보건기구의 WHOQOL-BREF 삶의 질 척도를 참고하여 삶의 질을 아래의 <표 4-2>와 같이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WHOQOL-BREF 삶의 질 척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건강을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의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삶의 질의 영역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특성과 한계점을 감안하여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영역을 경제적 영역으로 대체하였으며 WHOQOL-BREF 삶의 질 척도 전반적 영역의 하부척도인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 바흐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 0.85, 환경 영역의 경우 0.95로 0.70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WHOQOL-BREF의 크론 바흐알파계수가 0.60~0.92 값을 가지는 것을 감안할 때, 각 영역별 하부척도의 설정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척도

삶의 질 영역	하부척도
영역 1. 전반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영역 2. 경제적 영역	월 평균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영역 3. 사회적 관계 영역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
	거리·동네에서의 차별
영역 4. 환경 영역	상점·은행 등에서의 차별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서의 차별
	직장에서의 차별

전반적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은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별 만족도를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월 평균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 항목은 세금 공제 전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5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총 9개의 선택지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모국가족의 경제수준과 한국가족의 경제수준 차를 의미하며,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하락 10단계와 상승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영역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결혼 이주여성 중 차별대우 받은 정도를 해당 항목별로 ‘심한 차별 받았다’ 4점, ‘조금 차별 받았다’ 3점, ‘별로 차별 받지 않았다’ 2점,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을 각각 5개의 구간 값을 갖도록 <표 4-3>과 같이 재구성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월 평균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인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 미만’ 1점,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점, ‘500만원 이상’ 5점으로 재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경제수준 하락’ 1점, ‘변화 없음’ 2점, ‘1~2단계 상승’ 3점, ‘3~4단계 상승’ 4점, ‘5단계 이상 상승’ 5점으로 재구성하였다.

사회적 관계 영역은 4개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을 5개 구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환경 영역은 ‘차별경험 없음’ 1점과 5개의 차별경험정도의 산술평균값을 4개 구간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4-3> 종속변수의 설정

구분	월 평균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가족관계 만족도	차별경험
1점	50만원 미만	하락	0점	없음
2점	50~200만원 미만	변화 없음	0점 이상 2점 미만	0점 이상 1점 미만
3점	200~300만원 미만	1~2단계 상승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4점	300~500만원 미만	3~4단계 상승	3점 이상 4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5점	500만원 이상	5단계 이상 상승	4점 이상	3점 이상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본인관련 사항과 배우자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다. 본인관련 사항은 연령,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미취학 자녀 유무, 한국국적 취득여부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해당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5점에서 ‘매우 나쁨’ 1점까지 응답한 주관적 만족도이다. 결혼 전 국적은 전체 9개 국적을 중국(조선족), 중국(조선족 이외), 베트남, 일본, 필리핀, 기타의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성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성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배우자 관련 사항은 배우자와의 나이차, 배우자를 만난 경로, 배우자의 직업을 사용하였다.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 가족 및 친구, 종교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및 기타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배우자가 농림어업

에 종사하는 경우와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미취업인 경우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둘째, 인적자본은 모국 인적자본과 한국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모국 인적자본은 모국 교육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총 교육받은 년수를 반영하였다. 한국 인적자본의 경우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한국어 수준을 말하기, 읽기, 쓰기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한 주관적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을 각 항목의 총합의 산술평균으로 반영하였다. 본인의 취업여부는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와 미취업 상태인 경우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모국인 사회적 자본과 한국인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며 모국인 사회적 자본은 모국인지지의 유무와 모국인 친구모임 참석유무를 더미변수화하였고 한국인 사회적 자본은 한국인지지의 유무와 지역주민 모임의 참석 유무를 더미변수화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반영된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연령의 경우 도시의 평균연령이 2.4세 더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나이차는 1.7세 더 적었다. 모국 교육년수와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은 도시와 농어촌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 전 국적은 도시의 경우 중국(조선족)인 비중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 베트남인 경우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유무는 도시의 경우 33.9%로 농어촌의 40.1%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도시의 경우 36.2%로 농어촌의 31.2%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 모두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와 만난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10.2%에 불과한데 반하여 도시의 경우 1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미취업인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은 도시와 농어촌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도시의 경우 1.7%에 불과한데 반하여 농어촌의 경우 2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취업여부는 도시의 경우가 35.2%로 농어촌의

27.5%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적 네트워크인 모국인 지지와 한국인 지지의 경우 도시는 모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이 57.5%로 농어촌의 62.1%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한국인지지가 있는 비중은 81.1%로 농어촌의 79.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를 나타내는 모국인 친구모임에 참석한 경험에 있는 경우와 지역주민 모임 참석한 경험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은 농어촌이 각각 67.7%와 38.5%로 도시의 60.6%와 2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도시		농어촌	
	평균/비중	(S.D.)	평균/비중	(S.D.)
연령	38.7세	(9.5)	36.3세	(9.1)
배우자와 나이차	9.8세	(7.1)	11.5세	(7.2)
전반적 건강상태	3.5	(0.9)	3.6	(0.9)
모국 교육년수	11.3	(2.9)	11.0	(3.0)
한국어 수준	3.3	(1.0)	3.1	(1.0)
한국 거주기간	62.4개월	(47.4)	62.3개월	(50.0)
결혼 전 국적				
중국(조선족)	43.3%		26.3%	
중국(조선족 이외)	17.0%		10.3%	
베트남	23.2%		39.6%	
일본	5.5%		8.6%	
필리핀	4.7%		8.2%	
기타	6.3%		6.9%	
미취학 자녀 유무				
1=있음	33.9%		40.1%	
0=없음	66.1%		50.9%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24.5%		38.5%	
가족,친지 및 종교기관	55.8%		51.2%	
스스로 및 기타	19.7%		10.2%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1.7%		22.8%	
농림어업 이외 직종	86.5%		67.2%	
미취업	11.8%		10.0%	
N	6,866		4,273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계속

변수	도시		농어촌	
	평균/비중	(S.D.)	평균/비중	(S.D.)
한국국적취득여부				
1=취득	36.2%		31.2%	
0=미취득	63.8%		68.7%	
본인 취업여부				
1=취업	35.2%		27.5%	
0=미취업	64.8%		72.5%	
모국인지지				
1=있음	57.5%		62.1%	
0=없음	42.5%		37.8%	
모국인 친구모임 참석여부				
1=있음	60.6%		67.7%	
0=없음	39.4%		32.3%	
한국인지지				
1=있음	81.1%		79.1%	
0=없음	18.9%		20.8%	
지역주민 모임 참석여부				
1=있음	20.7%		38.5%	
0=없음	79.3%		61.5%	
N	6,866		4,273	

제 5 장 실증분석결과

제 1절 삶의 질의 영역별 결정요인

1. 전반적 영역

삶의 질의 전반적 영역의 종속변수는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불만’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으로 조사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결정요인을 제4장에서 설명한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5-1>은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배우자를 만난 경로, 모국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 배우자의 직업, 모국인지지 유무, 한국인지지 유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통된 요인 이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는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나, 일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전 국적이 필리핀인 여성의 경우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낮으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참조그룹인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직업이 있는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참조그룹인 배우자 직업이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 중 한국어 수준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한국어 수준은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과 본인 취업여부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인 모국인지지 유무와 한국인지지의 유무는 도시의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의 경우 한국인지지 유무에 한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의 결과는 y_i 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y_i^* 의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5-2>, <표 5-3>의 한계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5-2>와 <표 5-3>은 도시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5-1>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정요인을 토대로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도시와 농어촌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 교육수준과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이거나, ‘매우 불만’에서 ‘만족’을 선택할 확률의 변동이 1%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인 취업여부의 경우 34%로 큰 변동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전반적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연령	-0.02	(0.01)	-0.01	(0.02)
연령 ² /100	0.02*	(0.01)	0.02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1*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32***	(0.02)	0.31***	(0.02)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00	(0.04)	0.03	(0.07)
국적 베트남	0.32***	(0.05)	0.41***	(0.07)
필리핀	-0.13*	(0.07)	0.13*	(0.08)
일본	-0.67***	(0.07)	-0.46***	(0.09)
기타	-0.04	(0.06)	0.00	(0.08)
미취학 자녀 유무	-0.05	(0.03)	-0.07*	(0.04)
한국국적 취득여부	-0.20***	(0.04)	-0.06	(0.05)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10***	(0.04)	-0.10**	(0.05)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6*	(0.04)	0.02	(0.06)
모국 교육수준	-0.02***	(0.01)	-0.02***	(0.01)
한국어 수준	0.12***	(0.02)	0.14***	(0.02)
한국거주기간 ²	-0.05***	(0.01)	-0.10***	(0.01)
본인 취업여부	-0.15***	(0.03)	-0.17***	(0.04)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21**	(0.04)	0.14**	(0.06)
직업 기타 직업	0.28***	(0.11)	0.31***	(0.06)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10	(0.03)	-0.14	(0.04)
지역주민 모임 유무	0.27**	(0.03)	0.28	(0.04)
모국인지지 유무	0.05***	(0.03)	-0.01***	(0.04)
한국인지지 유무	0.08***	(0.03)	0.00***	(0.04)
cut1	-1.28	(0.28)	-2.07	(0.36)
cut2	-0.74	(0.28)	-1.17	(0.36)
cut3	0.74	(0.28)	0.38	(0.36)
cut4	1.84	(0.28)	1.34	(0.36)
Log likelihood	-8022.70		-4959.44	
LR χ^2	1381.55		1001.75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2> 전반적 영역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0	-0.02	-0.10	0.03	0.09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00	0.02	0.27	0.42	0.29
	필리핀	0.01	0.05	0.39	0.39	0.17
	일본	0.03	0.11	0.52	0.28	0.07
미취학 자녀 유무		0.01	0.04	0.36	0.40	0.20
배우자 만난 경로		0.01	0.36	0.35	0.40	0.21
스스로 및 기타		0.01	0.39	0.36	0.40	0.20
모국 교육수준		0.00	0.00	0.01	-0.00	-0.01
한국어 수준		-0.00	-0.01	-0.04	0.01	0.04
한국거주기간 ²		0.00	0.00	0.01	-0.00	-0.01
본인 취업여부		0.01	0.04	0.37	0.39	0.19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종사	0.01	0.04	0.35	0.40	0.21
	기타 직업	0.00	0.03	0.34	0.40	0.22
모국인지지 유무		0.01	0.04	0.37	0.39	0.19
한국인지지 유무		0.00	0.03	0.34	0.40	0.22

<표 5-3> 전반적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0	-0.02	-0.09	0.02	0.09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00	0.02	0.28	0.37	0.33
	필리핀	0.00	0.03	0.37	0.36	0.24
	일본	0.02	0.10	0.52	0.27	0.10
미취학 자녀 유무		0.00	0.04	0.38	0.35	0.23
배우자 만난 경로		0.00	0.03	0.36	0.36	0.24
스스로 및 기타		0.00	0.03	0.35	0.36	0.26
모국 교육수준		0.00	0.00	0.01	-0.00	-0.01
한국어 수준		-0.00	-0.01	-0.04	0.01	0.04
한국거주기간 ²		0.00	0.01	0.03	-0.01	-0.03
본인 취업여부		0.01	0.04	0.39	0.35	0.21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종사	0.01	0.04	0.40	0.35	0.21
	기타 직업	0.00	0.03	0.34	0.36	0.26
모국인지지 유무		0.00	0.04	0.38	0.35	0.22
한국인지지 유무		0.00	0.04	0.35	0.36	0.26

2. 경제적 영역

가. 월 평균 가구소득

삶의 질의 경제적 영역은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 월 평균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5-4>는 종속변수를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미취학 자녀 유무, 배우자를 만난 경로, 모국 교육수준, 한국어수준, 본인 취업여부, 배우자의 직업, 모국인 친구 모임 유무, 지역주민 모임 유무, 한국인지지 유무에서 도시와 농어촌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와 필리핀인 경우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참조그룹인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보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이주여성의 경우 참조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 교육수준과 한국어 수준, 본인 취업여부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지역주민 모임 유무, 모국인지지 유무는 월 평균 가구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와 <표 5-6>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전반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농어촌과 도시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월 평균 가구소득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농어촌의 경우 한국인지지의 유무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지지가 있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

번기 철 일손 돕기 등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한국인지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수월하고, 한국인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월 평균 가구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첫 번째 구간인 '50만원 미만'구간과 4번째 구간인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구간의 변동 확률 차는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두 구간의 확률 변동이 4%에 불과한 반면, 배우자가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의 확률 변동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직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 비해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월 평균 가구소득의 더 큰 변동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본인 취업여부는 다른 인적자본 변수들에 비해 월 평균 가구소득에 큰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국 교육수준과 한국어 수준의 경우 '50만원 미만'구간에 속할 확률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구간에 속할 확률의 변동차이가 1% 내외로 매우 낮은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일 경우 두 구간에 속할 확률의 변동차이가 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4> 경제적 영역1.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월 평균 가구소득)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연령	0.03***	(0.01)	0.01	(0.01)
연령 ² /100	-0.05***	(0.01)	-0.02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14***	(0.01)	0.12***	(0.02)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00	(0.04)	0.02	(0.07)
국적 베트남	-0.16***	(0.05)	-0.20***	(0.07)
필리핀	-0.47***	(0.07)	-0.34***	(0.08)
일본	0.08	(0.07)	0.04	(0.09)
기타	0.00	(0.06)	-0.06	(0.08)
미취학 자녀 유무	-0.15***	(0.03)	-0.09**	(0.04)
한국국적 취득여부	-0.00	(0.04)	0.03	(0.05)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03	(0.04)	-0.12***	(0.04)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15***	(0.04)	0.25***	(0.06)
모국 교육수준	0.03***	(0.01)	0.03***	(0.01)
한국어 수준	0.04***	(0.02)	0.05***	(0.02)
한국거주기간 ²	-0.02**	(0.01)	-0.02	(0.01)
본인 취업여부	0.22***	(0.03)	0.18***	(0.04)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84***	(0.11)	0.32***	(0.06)
직업 기타 직업	1.06***	(0.04)	0.93***	(0.06)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6**	(0.03)	0.11***	(0.04)
지역주민 모임 유무	0.16***	(0.03)	0.14***	(0.04)
모국인지지 유무	0.13***	(0.03)	0.07*	(0.04)
한국인지지 유무	-0.04	(0.03)	0.02	(0.04)
cut1	0.29	(0.28)	-0.17	(0.35)
cut2	1.30	(0.28)	0.90	(0.35)
cut3	2.75	(0.28)	2.30	(0.35)
cut4	4.30	(0.29)	3.73	(0.36)
Log likelihood	-7827.17		-5091.21	
LR χ^2	1301.72		735.80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5> 경제적 영역1.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1	-0.03	-0.02	0.04	0.01
결혼 전	베트남	0.03	0.15	0.53	0.27	0.02
국적	필리핀	0.06	0.23	0.53	0.18	0.01
미취학 자녀 유무		0.03	0.16	0.53	0.27	0.02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03	0.15	0.52	0.28	0.02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2	0.11	0.49	0.35	0.03
모국 교육수준		-0.00	-0.01	-0.00	0.01	0.00
한국어 수준		-0.00	-0.01	-0.01	0.01	0.00
한국거주기간 ²		0.00	0.00	0.00	-0.01	-0.00
본인 취업 여부		0.02	0.11	0.50	0.34	0.03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3	0.16	0.53	0.27	0.02
직업	기타 직업	0.02	0.11	0.50	0.34	0.03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2	0.13	0.51	0.31	0.03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3	0.15	0.52	0.29	0.02
한국인지지 유무		0.02	0.13	0.51	0.31	0.03

<표 5-6> 경제적 영역1.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1	-0.03	0.00	0.03	0.00
결혼 전	베트남	0.05	0.23	0.51	0.20	0.01
국적	필리핀	0.07	0.27	0.50	0.16	0.01
미취학 자녀 유무		0.05	0.22	0.51	0.20	0.01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05	0.24	0.51	0.19	0.01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2	0.15	0.50	0.31	0.03
모국 교육수준		-0.00	-0.01	0.00	0.01	0.00
한국어 수준		-0.00	-0.01	0.00	0.01	0.00
한국거주기간 ²		0.00	0.00	-0.01	-0.01	-0.00
본인 취업 여부		0.03	0.18	0.51	0.25	0.02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9	0.30	0.48	0.13	0.01
직업	기타 직업	0.02	0.16	0.50	0.29	0.03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4	0.21	0.51	0.22	0.02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4	0.21	0.51	0.22	0.02
한국인지지 유무		0.04	0.20	0.21	0.53	0.02

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다음의 <표 5-7>은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연령,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미취학 자녀 유무, 배우자를 만난 경로, 모국 교육수준, 본인 취업여부, 배우자의 직업에서 도시와 농어촌간 공통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결과 이외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한국거주기간이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이 어릴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은 중국(조선족 외)을 제외한 모든 국적에서 참조집단 중국(조선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가족, 친지 및 종교집단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 교육수준과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는 모국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취업상태 일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인 모국인지지 유무와 한국인지지 유무, 지역주민 모임 유무,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8>과 <표 5-9>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전반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농어촌과 도시에서 비슷한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하락’구간에 속할 확률과 ‘1~2단계 상승’구간에 속할 확률의 차가 도시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미취

학 자녀의 유무가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농어촌의 경우 배우자를 만난 경로 중 스스로 및 기타의 경우가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구간 중 ‘하락’구간과 ‘변화 없음’구간에 비해 ‘1~2단계 상승’, ‘3~4단계 상승’ ‘5단계 이상 상승’구간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부분의 변수에서 ‘변화 없음’구간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1~2단계 상승’구간에 속할 확률과 ‘하락’구간에 속할 확률과의 차는 2%로 낮게 나타난 반면,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 ‘1~2단계 상승’구간에 속할 확률과 ‘하락’구간에 속할 확률과의 차는 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7> 경제적 영역2.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사회경제적 지위변화)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연령	-0.03***	0.01	-0.04***	(0.02)
연령 ² /100	0.03**	0.01	0.03**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08***	0.02	0.04***	(0.02)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01	0.05	-0.06	(0.07)
국적 베트남	0.30***	0.05	0.22***	(0.07)
필리핀	0.65***	0.07	0.71***	(0.08)
일본	0.19***	0.07	0.18**	(0.09)
기타	0.26***	0.06	0.15**	(0.08)
미취학 자녀 유무	-0.11***	0.03	-0.09**	(0.04)
한국국적 취득여부	-0.02	0.04	0.11**	(0.05)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14***	0.04	0.21***	(0.05)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7*	0.04	-0.08	(0.06)
모국 교육수준	-0.05***	0.01	-0.06***	(0.01)
한국어 수준	0.02	0.02	0.03	(0.02)
한국거주기간 ²	-0.02	0.01	-0.04***	(0.01)
본인 취업여부	-0.11***	0.03	-0.07*	(0.04)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15***	0.04	0.22***	(0.06)
직업 기타 직업	0.27***	0.10	0.17***	(0.06)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0	0.03	-0.02	(0.04)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5	0.03	0.01	(0.04)
모국인지지 유무	-0.06*	0.03	-0.01	(0.04)
한국인지지 유무	0.16***	0.04	0.02	(0.04)
cut1	-1.23	0.29	-2.14	(0.36)
cut2	0.05	0.29	-0.81	(0.36)
cut3	0.80	(0.29)	-0.07	(0.36)
cut4	1.41	(0.29)	0.57	(0.36)
Log likelihood	-7853.20		-5212.22	
LR χ^2	861.47		651.33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8> 경제적 영역2.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연령		0.01	-0.00	-0.01	-0.00	-0.00
연령 ² /100		-0.01	0.00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03	0.01	0.01	0.01	0.00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30	0.48	0.16	0.05	0.02
	필리핀	0.19	0.47	0.22	0.09	0.04
	일본	0.34	0.47	0.14	0.04	0.01
	기타	0.31	0.47	0.15	0.05	0.02
미취학 자녀 여부		0.39	0.45	0.12	0.03	0.01
한국국적 취득여부		0.36	0.46	0.13	0.04	0.01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31	0.47	0.16	0.05	0.02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41	0.44	0.11	0.03	0.01
모국 교육수준		0.02	-0.01	-0.01	0.00	0.00
한국거주기간 ²		0.01	-0.00	0.00	0.00	0.00
본인 취업여부		0.38	0.45	0.12	0.03	0.01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30	0.47	0.15	0.04	0.01
직업	기타 직업	0.36	0.46	0.13	0.03	0.01

<표 5-9> 경제적 영역2.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연령		0.01	-0.00	-0.01	-0.00	-0.00
연령 ² /100		-0.01	0.00	0.01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01	0.00	0.01	0.00	0.00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24	0.49	0.18	0.06	0.02
	필리핀	0.12	0.44	0.25	0.12	0.06
	일본	0.26	0.49	0.17	0.06	0.02
	기타	0.27	0.49	0.17	0.06	0.02
미취학 자녀 여부		0.29	0.49	0.16	0.05	0.02
한국국적 취득여부		0.22	0.42	0.19	0.07	0.03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22	0.49	0.20	0.07	0.03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34	0.47	0.13	0.04	0.01
모국 교육수준		0.02	-0.00	-0.01	-0.01	-0.00
한국거주기간 ²		0.01	-0.00	-0.01	-0.00	-0.00
본인 취업여부		0.28	0.49	0.16	0.05	0.02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25	0.49	0.18	0.06	0.02
직업	기타 직업	0.26	0.49	0.17	0.06	0.02

3. 사회적 관계 영역

삶의 질의 사회적 관계 영역의 종속변수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이용하여 ‘매우 불만’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5-10>은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 배우자와의 나이차,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미취학 자녀의 유무,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 배우자의 직업, 지역주민 모임의 유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통된 요인 이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이 어릴수록, 배우자와의 나이차가 적을수록,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일 경우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참조그룹인 미취업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가 농림어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 중 모국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수준이 좋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고, 취업상태일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 변수인 지역주민 모임의 유무는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주민 모임 경험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반면, 도시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과 <표 5-12>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다른

삶의 질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농어촌과 도시에서 비슷한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농어촌의 경우 연령, 배우자와의 나이차, 전반적 건강상태,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가족관계 만족에 큰 변동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의 농어촌 지역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대부분의 변수가 ‘매우 불만’구간의 선택확률과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이가 4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한국어 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은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요인이거나, ‘매우 불만’과 ‘만족’을 선택할 확률의 차가 1%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인 취업여부는 ‘매우 불만’과 ‘만족’을 선택할 확률의 차가 4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인 취업여부가 다른 인적자본 변수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큰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인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와 지역주민 모임의 유무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본인 취업여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큰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며 한계효과 또한 큰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모국인 친구모임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모임 역시 사회적 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적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0> 사회적 관계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가족관계 만족도)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연령	-0.01	(0.01)	-0.02	(0.02)
연령 ² /100	-0.06***	(0.01)	-0.05***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3***	(0.00)	-0.02***	(0.00)
전반적 건강상태	0.22***	(0.01)	0.29***	(0.02)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11***	(0.04)	0.08	(0.07)
국적 베트남	0.31***	(0.05)	0.04***	(0.07)
필리핀	0.19***	(0.07)	0.17**	(0.08)
일본	0.02	(0.07)	-0.09	(0.09)
기타	0.20***	(0.06)	0.18**	(0.08)
미취학 자녀 유무	0.43***	(0.03)	0.28***	(0.04)
한국국적 취득여부	0.10***	(0.04)	-0.05	(0.05)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03	(0.04)	-0.05	(0.05)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1	(0.04)	-0.00	(0.06)
모국 교육수준	-0.00	(0.01)	0.07	(0.01)
한국어 수준	0.10***	(0.02)	0.15***	(0.02)
한국거주기간 ²	0.09***	(0.01)	-0.34***	(0.01)
본인 취업여부	-0.33***	(0.03)	0.15***	(0.04)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5	(0.04)	0.21**	(0.06)
직업 기타 직업	0.16***	(0.11)	-0.16***	(0.06)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4	(0.03)	0.19***	(0.04)
지역주민 모임 유무	0.24***	(0.03)	-0.03***	(0.04)
모국인지지 유무	-0.07**	(0.03)	-0.03	(0.04)
한국인지지 유무	0.06*	(0.03)	0.08	(0.04)
cut1	-1.82	(0.28)	-2.12	(0.36)
cut2	-0.68	(0.28)	-0.77	(0.36)
cut3	0.54	(0.28)	0.59	(0.36)
cut4	1.74	(0.28)	1.90	(0.36)
Log likelihood	-8179.81		-4754.88	
LR χ^2	2354.51		1257.43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11> 사회적 관계 영역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연령 ² /100		0.00	0.01	0.01	-0.01	-0.01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1	-0.00	-0.01
전반적 건강상태		-0.00	-0.03	-0.05	0.03	0.05
결혼 전	베트남	0.00	0.05	0.28	0.44	0.22
국적	필리핀	0.00	0.06	0.31	0.44	0.19
미취학 자녀 유무		0.00	0.04	0.25	0.45	0.27
한국어 수준		-0.00	-0.01	-0.02	0.01	0.03
한국거주기간 ²		-0.00	-0.01	-0.02	0.01	0.02
본인 취업여부		0.01	0.10	0.38	0.39	0.12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1	0.07	0.35	0.41	0.15
직업	기타 직업	0.00	0.06	0.33	0.43	0.18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0	0.07	0.34	0.42	0.17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0	0.06	0.32	0.43	0.19

<표 5-12> 사회적 관계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연령 ² /100		0.00	0.00	0.01	-0.00	-0.01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1	-0.00	-0.01
전반적 건강상태		-0.00	-0.02	-0.08	0.02	0.08
결혼 전	베트남	0.00	0.03	0.25	0.49	0.23
국적	필리핀	0.00	0.03	0.27	0.48	0.22
미취학 자녀 유무		0.00	0.02	0.23	0.49	0.26
한국어 수준		-0.00	-0.00	-0.02	0.01	0.02
한국거주기간 ²		-0.00	-0.01	-0.04	0.01	0.04
본인 취업여부		0.00	0.05	0.35	0.45	0.14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0	0.04	0.28	0.48	0.19
직업	기타 직업	0.00	0.03	0.29	0.48	0.20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0	0.03	0.29	0.48	0.20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0	0.03	0.27	0.48	0.22

4. 환경 영역

삶의 질의 환경 영역은 차별경험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3>과 같다. 전반적 건강상태, 결혼 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에서 도시와 농어촌간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외에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와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차별경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참조집단인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 비해 차별경험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일 경우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해 차별경험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건강상태는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차별경험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한국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상태일 경우에 미취업상태일 경우에 비해 차별경험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인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의 경우 모국인 친구모임에 참석한 경험 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석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차별경험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와 <표 5-15>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정도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농어촌과 도시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전 국적이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의 변수에서 ‘차별경험 없음’구간의 선택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이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차별경험 없음’구간을 선택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농어촌과 도시의 선택확률차이가 1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13> 환경 영역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차별경험정도)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연령	-0.02*	(0.01)	-0.02	(0.02)
연령 ² /100	0.01	(0.02)	0.01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1***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15***	(0.02)	-0.16***	(0.02)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03	(0.05)	0.09	(0.08)
국적 베트남	-0.45***	(0.06)	-0.27***	(0.09)
필리핀	-0.34***	(0.09)	-0.24***	(0.09)
일본	-0.41***	(0.08)	-0.26	(0.10)
기타	0.18***	(0.07)	-0.10	(0.10)
미취학 자녀 유무	0.11***	(0.04)	0.07	(0.05)
한국국적 취득여부	-0.13***	(0.04)	-0.08	(0.06)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09**	(0.05)	0.06	(0.06)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6	(0.04)	0.15**	(0.07)
모국 교육수준	-0.00	(0.01)	0.00	(0.01)
한국어 수준	-0.03*	(0.02)	-0.02	(0.03)
한국거주기간 ²	0.10***	(0.01)	0.09***	(0.02)
본인 취업 여부	0.15***	(0.03)	0.12***	(0.05)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03	(0.05)	-0.14*	(0.07)
직업 기타 직업	-0.04	(0.12)	-0.04	(0.08)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9***	(0.03)	0.12***	(0.05)
지역주민 모임 유무	-0.14***	(0.04)	-0.03	(0.05)
모국인지지 유무	0.08**	(0.03)	0.08	(0.05)
한국인지지 유무	0.04	(0.04)	-0.00	(0.04)
cut1	-0.44	(0.33)	0.33	(0.45)
cut2	-0.06	(0.33)	0.53	(0.45)
cut3	0.66	(0.33)	1.02	(0.45)
cut4	1.60	(0.33)	1.77	(0.45)
Log likelihood	-6416.53		-3571.87	
LR χ^2	363.79		189.33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14> 환경 영역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5	-0.01	-0.02	-0.01	-0.00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79	0.09	0.09	0.03	0.00
	필리핀	0.76	0.10	0.10	0.03	0.00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70	0.12	0.13	0.05	0.01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68	0.12	0.14	0.05	0.01
한국거주기간 ²		-0.03	0.01	0.02	0.01	0.00
본인 취업여부		0.67	0.12	0.15	0.06	0.01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68	0.12	0.14	0.05	0.01
직업	기타 직업	0.70	0.11	0.13	0.05	0.01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69	0.12	0.13	0.05	0.01

<표 5-15> 환경 영역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전반적 건강상태		0.05	-0.00	-0.02	-0.02	-0.01
결혼 전 국적	베트남	0.80	0.05	0.09	0.05	0.01
	필리핀	0.80	0.05	0.09	0.05	0.01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77	0.06	0.10	0.06	0.01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71	0.06	0.12	0.08	0.02
한국거주기간 ²		-0.03	0.00	0.01	0.01	0.00
본인 취업여부		0.74	0.06	0.11	0.07	0.02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79	0.05	0.09	0.05	0.01
직업	기타 직업	0.76	0.06	0.10	0.07	0.02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76	0.06	0.10	0.07	0.02

5. 농어촌 지역 삶의 질 결정요인 영역별 비교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영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5장 제1절의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표 5-16>의 결과를 얻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중 삶의 질의 4개의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전반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과 필리핀인 경우는 참조그룹인 중국(조선족)에 비하여

각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참조그룹인 미취업 상태에 비하여 각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한계효과는 농림어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유무는 환경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영역의 결정요인이며, 사회적 관계 영역에 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사회적 관계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의 결정요인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참조그룹인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 비해 전반적 영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영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인적자본 중 한국거주기간, 본인 취업여부는 삶의 질의 모든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은 환경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취업여부 또한 전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취업여부의 경우 다른 인적자본변수에 비해 큰 변동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모국 교육수준은 전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수준은 전반적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적자본에 비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적었다.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는 사회적 관계 영역과 환경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 모임 유무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인 모국인지지 유무와 한국인지지 유무는 전반적 영역에 한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모국인 지지의 유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인 지지의 유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각 영역별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변수	구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2.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
연령	-0.01	-0.04***	-0.02	-0.02
연령 ² /100	0.02	0.03**	-0.05***	0.01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2***	-0.00
전반적 건강상태	0.31***	0.04***	0.29***	-0.16***
결혼 전 중국(조선족 외)	0.03	-0.06	0.08	0.09
국적 베트남	0.41***	0.22***	0.04***	-0.27***
필리핀	0.13*	0.71***	0.17**	-0.24***
일본	-0.46***	0.18**	-0.09	-0.26
기타	0.00	0.15**	0.18**	-0.10
미취학 자녀 유무	-0.07*	-0.09**	0.28***	0.07
한국국적 취득여부	-0.06	0.11**	-0.05	-0.08
배우자 결혼중개업체	-0.10**	0.21***	-0.05	0.06
만난 경로 스스로 및 기타	0.02	-0.08	-0.00	0.15**
모국 교육수준	-0.02***	-0.06***	0.07	0.00
한국어 수준	0.14***	0.03	0.15***	-0.02
한국거주기간 ²	-0.10***	-0.04***	-0.34***	0.09***
본인 취업 여부	-0.17***	-0.07*	0.15***	0.12***
배우자 농림어업종사	0.14**	0.22***	0.21**	-0.14*
직업 기타 직업	0.31***	0.17***	-0.16***	-0.04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14	-0.02	0.19***	0.12***
지역주민 모임 유무	0.28	0.01	-0.03***	-0.03
모국인지지 유무	-0.01***	-0.01	-0.03	0.08
한국인지지 유무	0.00***	0.02	0.08	-0.00
cut1	-2.07	-2.14	-2.12	0.33
cut2	-1.17	-0.81	-0.77	0.53
cut3	0.38	-0.07	0.59	1.02
cut4	1.34	0.57	1.90	1.77
Log likelihood	-4959.44	-5212.22	-4754.88	-3571.87
LR χ^2	1001.75	651.33	1257.43	189.33
N	4,273			

- 1)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 2)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 3)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 4)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제 2절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질의 영역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다양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종속변수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임을 고려하여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 중 어떠한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2단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단계 분석¹⁾에서는 OLS 추정법을 통해 제5장 제1절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영역별 추정을 실시하여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적합값을 추정하였다. 1단계에서 추정한 영역별 적합값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17>과 같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클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차별경험 정도가 적을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과 <표 5-19>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변동을 미치는 영역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환경 영역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모두 차별경험정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을 선택할 확률이 ‘만족’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차별경험정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1) 1단계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한다.

‘매우 불만’을 선택할 확률이 ‘만족’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영역에 비하여 사회적 관계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에 더 큰 변동을 미치는 영역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라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매우 불만족’의 선택확률과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가 3%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의 선택확률과 ‘매우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는 12%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의 경우 ‘매우 불만의’ 선택확률과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는 3%로 농어촌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불만’의 선택확률과 ‘매우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는 9%로 농어촌에 비해 낮았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매우 불만’과 ‘매우 만족’의 선택확률의 차가 6%로 나타난 반면,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12%로 나타나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 더 큰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17>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전반적 삶의 만족도)

변수	구분	
	도시	농어촌
경제적 영역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0.38*** (0.06)	0.17*** (0.06)
사회적 관계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0.24*** (0.03)	0.34*** (0.04)
환경 영역 (차별경험정도)	-1.33*** (0.08)	-1.67*** (0.11)
cut1	-2.93 (0.21)	-3.47 (0.30)
cut2	-2.14 (0.21)	-2.60 (0.30)
cut3	-0.75 (0.21)	-1.14 (0.30)
cut4	0.30 (0.21)	-0.22 (0.29)
Log likelihood	-8298.53	-5131.77
LR χ^2	829.90	657.09
N	6,866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18>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계효과-도시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경제적 영역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0.01	-0.03	-0.11	0.03	0.11
사회적 관계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0.01	-0.02	0.07	0.02	0.07
환경 영역 (차별경험정도)	0.03	0.11	0.38	-0.12	-0.39

<표 5-19> 각 영역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계효과-농어촌

변수	$\frac{\partial P(y=1 x)}{\partial x}$	$\frac{\partial P(y=2 x)}{\partial x}$	$\frac{\partial P(y=3 x)}{\partial x}$	$\frac{\partial P(y=4 x)}{\partial x}$	$\frac{\partial P(y=5 x)}{\partial x}$
경제적 영역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0.00	-0.01	-0.05	0.01	0.06
사회적 관계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0.01	-0.03	-0.10	0.02	0.11
환경 영역 (차별경험정도)	0.03	0.13	0.49	-0.12	-0.53

제 6 장 결론

제 1절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국내외 다문화정책을 검토하고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순위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전반적 영역(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OLS 추정법과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2단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비교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정요인이 삶의 질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결혼 전 국적과 배우자를 만난 경로, 배우자의 직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과 필리핀인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차별경험정도가 중국(조선족)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48%가 결혼 전 국적이 베트남과 필리핀인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결혼 전 국적이 중국(조선족)인 경우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스스로 및 기타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환경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배우자가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 비해 낮은 소득구간에 속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본인의 취업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한국거주기간과 모국 교육수준, 본인 취업여부는 삶의 질의 전반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으며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한국인들에 비해 더 낮은 지위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삶의 질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적자본 중 한국어 수준은 전반적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수월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경제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의 경제적 영역을 제외한 전반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인적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와 지역주민 모임의 유무,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모국인지지 유무, 한국인지지의 유무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네트워크인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와 지역주민 모임 유무는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결

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인 모국인지지의 유무와 한국 인지지의 유무는 전반적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모국인 친구모임의 유무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 모임 유무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유무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도시의 경우에서도 지역주민 모임의 유무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관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단계 분석결과, 환경 영역이 전반적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의 경우 경제적 영역이 사회적 관계 영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 사회적 관계 영역이 경제적 영역에 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이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읍부에 위치하고 있어 면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한국어 수준은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높은 만족이 삶

의 전반적인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한국어 수준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를 통해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 다문화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5,396명 중 4,042명(74.9%)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의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영역에서는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의 선택확률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구간의 선택확률의 차가 4%에 불과한 반면, 농림어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할 경우 27%에 비해 낮게 나타나 월 평균 가구소득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농어촌 지역의 많은 다문화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 더불어 다문화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모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취업여부는 인적자본 중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적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의 경제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확대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경우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도시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참여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방안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적 네트워크와 한국인지지가 있는 경우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영역(차별경험정도)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하여 한국인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봉사단의 운영과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정기적인 다문화가족모임 보급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원만한 한국사회의 적응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방안과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중은 전체 결혼의 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비해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여러 다문화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다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일회성 자료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원이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삶의 질의 영역을 구분함에 있어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의 영역별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제한으로 인해 월 평균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차별경험정도의 5개 구간을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반영한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나, 기대하였던 확연한 차이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정숙(2001), “독일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연구, 7:153-160.
- 강혜정(2009), 농촌 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고혜원·김상호(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권구영(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5:104-140.
- 김미숙·김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보유자원이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족과 문화, 24(2):64-100.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룡·오승석·진기남·안희정(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135-155.
- 김태현·이내성(2008), 푸른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농림어업총조사 분석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민성길·김광일·박일호(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하나의학사.
- 민인식·최필선(2008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한국STATA학회 출판부.
- _____ (2008b), *고급패널데이터분석*, 한국STATA학회 출판부.
- 박대식·마상진(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31-55.
-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희봉·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5):709-728.
- 성도경·이지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749-772.
- 여성가족부(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여성의 인적자본·사회자본·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2):225-259.
- 이경혜·김경원(2011),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121-131
- 이남철·김형만·이미영(2012),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호(2008),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 분석,” 농촌경제, 31(4):33-48.
- 이성우·권오상·이호철(2003), “농촌개발을 위한 역동적 지역사회개발 모형 연구,” 농촌사회, 13(1):7-49.
- 이태호·임정빈·서명천·강마야(2009),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통한 농가 행복도 연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
- 임형백·이성우(2005),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출판부.
- 장나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12(2):95-114
- 차원규(2012),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진영(2012),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사례연구,” 교육사상연구, 26(3):211-228

Blanchflower, D.G., Oswald, A.J.(1993),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London School of Economics, Conference paper.

- Delhey, J., Bohnke, P., Habich, R., Zapf, W.(2002), “Quality of life in a European Perspective: The EUROMODULE as a New Instrument for Comparative Welfare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 161-175.
- Easterline, R.A.(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 a unified theory,” *Economic Journal*, Vol. 111.
- Frey, B.S., Stutzer, A.(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09(7):918-938.
- Lindstorm, B., Ericsson, B.(1993), “Quality of Life Among Children in the Nordic Countries,” *Quality of Life Research* (2):23-32.
- Nussbaum. M., Sen, A.(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Clarendon Press.
- OECD(2001), *Society at a glance*.
- Oswald, A.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6):1815-1831.
- Pukeline, Violeta., Starkaukiene, Viktorijia. (2011), “Quality of Life: Factors Determining its Measurement Complexity,” *Inzinerine Ekonomika-Engineering Economics*, 22(2):147-156.
- Putnam, R.(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65-78.
- Ross, Catherine E., Van Willigen, Merieke.(1997), “Educ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275-297.
- Schultz, T.(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5:1-16.
- Veehoven, R.(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1:1-39.
- 總務省(2006),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참고사이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ttp://pmo.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kosis.kr>

부 록

<부표 1> 각 영역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단계 분석-농어촌

변수		구분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	
연령		-0.04***	(0.01)	-0.01	(0.01)	-0.01	(0.01)
연령 ² /100		0.03	(0.01)	-0.04***	(0.01)	0.01	(0.02)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2***	(0.00)	-0.00	(0.00)
전반적 건강상태		0.03	(0.02)	0.20***	(0.01)	-0.12***	(0.02)
결혼 전 국적	중국 (조선족 외)	-0.07	(0.06)	0.05	(0.05)	0.07	(0.07)
	베트남	0.17***	(0.06)	0.17***	(0.05)	-0.18***	(0.07)
	필리핀	0.58***	(0.06)	0.12**	(0.05)	-0.17***	(0.07)
	일본	0.19***	(0.07)	-0.06	(0.05)	-0.17**	(0.08)
	기타	0.12	(0.07)	0.12**	(0.06)	-0.06	(0.08)
미취학 자녀 여부		-0.07	(0.03)	0.19***	(0.03)	0.06*	(0.04)
한국국적 취득여부		0.09	(0.04)	-0.03	(0.03)	-0.05	(0.05)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중개 업체	0.17***	(0.04)	-0.03	(0.03)	0.04	(0.04)
	스스로 및 기타	-0.06	(0.05)	0.00	(0.04)	0.12**	(0.06)
모국 교육수준		-0.05***	(0.01)	-0.00	(0.00)	0.00	(0.01)
한국어 수준		0.02	(0.02)	0.05***	(0.01)	-0.03	(0.02)
한국거주기간 ²		-0.04***	(0.01)	0.10***	(0.01)	0.06***	(0.01)
본인 취업 여부		-0.06	(0.03)	-0.24***	(0.03)	0.04	(0.04)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종사	0.16***	(0.05)	0.11***	(0.04)	-0.09	(0.05)
	기타 직업	0.15***	(0.05)	0.15***	(0.04)	-0.04	(0.06)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1	(0.03)	-0.10	(0.03)	0.07*	(0.04)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0	(0.04)	0.14**	(0.03)	0.00	(0.04)
모국인지지 유무		-0.02	(0.03)	-0.02***	(0.03)	0.10***	(0.04)
한국인지지 유무		-0.01	(0.03)	0.05***	(0.03)	-0.03	(0.03)
constant		3.47***	(0.30)	3.05***	(0.25)	2.00***	(0.33)
Adj R ²		0.13		0.26		0.03	
N		4,273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부표 2> 각 영역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단계 분석-도시

변수	구분			
	경제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	
연령	-0.03*** (0.01)	-0.00 (0.01)	-0.02* (0.01)	
연령 ² /100	0.03*** (0.10)	-0.05*** (0.01)	0.01 (0.01)	
배우자와 나이차	0.00* (0.00)	-0.02*** (0.00)	-0.01*** (0.00)	
전반적 건강상태	0.05*** (0.01)	0.16*** (0.01)	-0.11*** (0.01)	
결혼 전 국적	중국 (조선족 외)	-0.01 (0.04)	0.09*** (0.03)	-0.03 (0.04)
	베트남	0.23*** (0.04)	0.24*** (0.04)	-0.29*** (0.05)
	필리핀	0.51*** (0.06)	0.16*** (0.05)	-0.21*** (0.06)
	일본	0.16*** (0.06)	0.03 (0.05)	-0.26*** (0.06)
	기타	0.19*** (0.05)	0.16*** (0.05)	-0.12** (0.05)
미취학 자녀 여부	-0.09*** (0.03)	0.32*** (0.02)	0.07*** (0.03)	
한국국적 취득여부	-0.02 (0.03)	0.08*** (0.03)	-0.07 (0.03)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중개 업체	0.12*** (0.03)	-0.02 (0.03)	0.06* (0.03)
	스스로 및 기타	-0.04 (0.03)	0.01 (0.03)	0.05* (0.03)
모국 교육수준	-0.04*** (0.00)	0.00 (0.00)	-0.00 (0.00)	
한국어 수준	0.02 (0.01)	0.08*** (0.01)	-0.03 (0.01)	
한국거주기간 ²	-0.02** (0.01)	0.07*** (0.01)	0.06*** (0.01)	
본인 취업여부	-0.07*** (0.02)	-0.25*** (0.02)	0.06*** (0.03)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종사	0.10*** (0.03)	0.13*** (0.03)	-0.03 (0.04)
	기타 직업	0.20*** (0.08)	0.04 (0.08)	0.04 (0.09)
모국인 친구모임 유무	-0.00 (0.02)	-0.03*** (0.02)	0.05** (0.03)	
지역주민 모임 유무	0.03 (0.03)	0.19* (0.03)	0.04 (0.03)	
모국인지지 유무	-0.04* (0.02)	-0.05 (0.03)	0.07*** (0.02)	
한국인지지 유무	0.12*** (0.03)	0.05*** (0.03)	-0.11*** (0.03)	
constant	2.73*** (0.22)	3.03*** (0.21)	2.42*** (0.24)	
Adj R ²	0.11	0.30	0.04	
N	6,866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결혼 전 국적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국(조선족)임.

3) 배우자 만난 경로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가족, 친지 및 종교기관임.

4) 배우자 직업 더미변수의 참조그룹은 미취업임.

5)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 Cas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Korea

Saebom Kim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changing such that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s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crease. In particular, as the Korean female population is declining in rural areas, many Korean males in these areas have married females from Southeast Asia. Such marriages bring enormous changes to the composition of the farming population. Given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marriage migrant women. However,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regions live in a political blind zone compared to those in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regions and empirically to analyze the factors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set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regions based on data from the 「2009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categorized ‘quality of life’ into general, economic, social relationship and environment domains. In addition, marriage migrant wom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urban, rural) according to their residential areas. Based on these grouping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determinants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se women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analyses and an ordered probit model. Also, this study carried out a two-stage analysis using OLS method of estimation and an ordered probit model in order to determine which domain has the greatest influence the general domain as it pertains to the quality of life.

The main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omain influencing the general domain most is the environment domain. In rural regions, the social relationship domain had more influence on the general domain than the economic domain, but for urban regions, the economic domain had more influence on the general domain. Second, regarding the sociological variables, when the husbands of marriage migrant women engage in agriculture, the monthly average income of the family is lower compared to that of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with husbands have other types of jobs. Third,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as a form of human capital was found to influence all domains pertaining to quality of life posi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employment variable for marriage migrant women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quality of life. Many marriage migrant woman in rural regions have typically never entered the labor market regardless of the education level attained in their homelands, and even when they have been employed, many of them earned less compared to Koreans having the same education level. Consequently, they may feel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such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migrant women. Fourth, social capital is linked to human networks, and social support was found positively to influence domains of the quality of life comprehensively.

The finding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ose wh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Korea. First, mor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hould be built in rural regions. Additionally, to help these women adjust rapidly to Korean society,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other programs that will allow them to expand their human networks are necessary. Finally, to allow marriage migrant women whose husbands engage in agriculture to adjust stably to Korea society, economic support for multi-cultural farms in rural regions is required.

This study suggests political dire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Korea afte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that the data range is limited and the psychological domain of the quality of life is excluded. However, this study divides ‘quality of life’ into several domains and approaches them individually, rather than considering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those who create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Korea.

keywords: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 Number : 2011-23488